"5년 안에 문화계의 별"

이 되기 위해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꿈 많은 청년 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막연히 무언가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미술을 그만둔 후로 글쓰기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면서 도서관이 제 2의 생활터전이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해외문화 체험단 공모전'에 선발되었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를 왜 실행해야 하는지 기획서를 만들었고, 공모에 선발되어 배낭여행을 하면서 저의 좁았던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고, 교환학생 생활 동안 무료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연극 무대에 참여 했을 뿐 아니라 촬영 차 아비뇽 시에 온 촬영 감독님께 아비뇽 축제 조직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실제로 연극축제의 기획 과정을 통역하고, 보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감독님께서 모든 과정을 저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초보인 저로써는 실수도 있었고, 통역도 매끄럽지 못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카메라에 담지 못했을 많은 에피소드들을 담을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를 강력하게 사로잡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이야 말로 저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사회적 경제학'을 수강하면서 '사회적 기업창업 소모임인'보노보'활동을 했습니다. 약 1년여를 사회적 기업 벤처 공모를 위해 준비했으나, 안타깝게도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의 취업준비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좌절하여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점도 얻을 수 없고, 재정적인 지원도 없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경제학을 배웠고, '착한 소비와 착한 마케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회사의 인턴경험이 없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영어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의 불어 통역 및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불문학이라는 전공상, 실제로 불어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불어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언어를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에도 익숙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경험, 좌절했던 경험이 결코 저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직선 코스를 달려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걸어온 구불구불한 길이 저의 아이디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시계를 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제게 주어진 20대를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한 투자의 시기로 삼고 싶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고등학교 때, 가족의 재정부족의 이유로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사정을 아신 학교 선생님께 받던 지도까지 포기하면서 그만두어야 했을 때는 이렇게 까지 저를 공허하게 만들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맴도는 표현하지 못한 열정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 아비뇽 지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소도시 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곳에서 세계 3대 연극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대한 공연장이나, 최신식의 무대는 당연히 없고, 평소에 지나다니던 골목, 역사 깊은 성의 안뜰, 도로 등에서 연극인들과 연극을 사랑하는 전세계인들이 자유롭게 무대를 조직 하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연장화 했습니다. 작고 좁은 공간마저 그들의 불평거리가 아니라 축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탄탄한 소프트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그 후로도 유럽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들이 가진 문화콘텐츠의 저력을 체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민족적 저력, 숭고한 역사, 맛과 멋 등의 충분한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일까?' 대학생활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고민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내의 우수 논문 연구 대회에서 '문화콘텐츠의 인문학적 고찰과 고용창출'이라는 논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 했던 것은 '인천의 문화콘텐츠' 였습니다. 근대화의역사가 곳곳에 묻어서 그 자체로써 개화기 역사의 현장인 인천이 방치됨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으로 더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을 모으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당장에 창출되는 수입을 보장할 수 없는 콘텐츠 기획보다, 공학계열의 연구성과를 주목했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저에게는 기획력과 실제화 능력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고 이미지화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부족이 제 논문의 완성도를 낮췄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모색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써 굉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실전으로 부딪치면서 보완하고 대한민국의 콘텐츠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백 명,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는 인생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